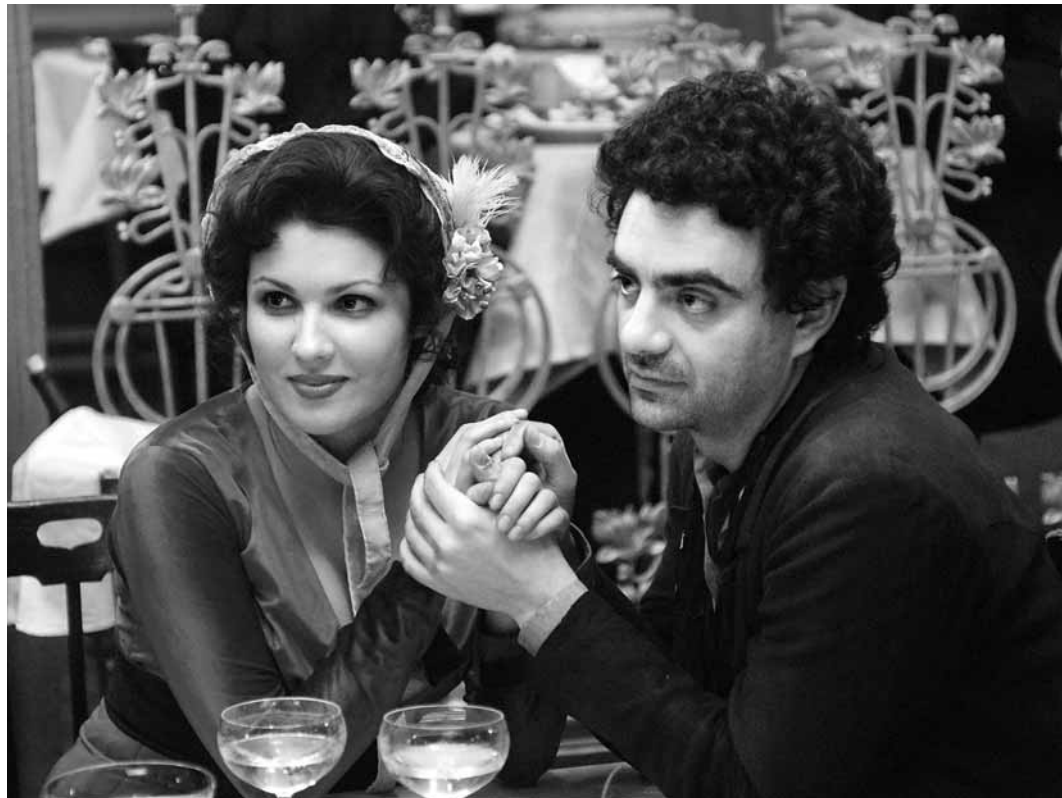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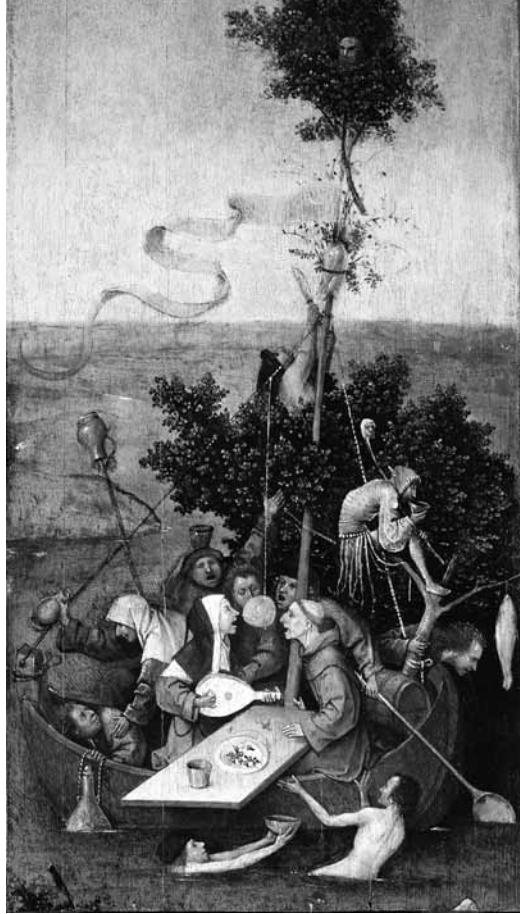


# 스크린으로 떠나는 예술여행



메가박스 총장로점은 세계 유명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스크린 뮤지엄'과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다큐 '히에라니무스 보쉬의 기이한 세계'(왼쪽)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나 네프레코 주연의 오페라 영화 '라 보엠'의 한 장면.

‘스크린으로 떠나는 예술여행.’ 해외 유수의 클래식 음악회, 오페라, 발레 콘텐츠를 소개해 온 메가박스가 이번에는 ‘세계 미술여행’을 시작한다.

‘스크린뮤지엄’은 세계 각지의 미술 전시회를 스크린으로 옮긴 프로젝트다. 세계 유명 예술 작품을 고화질 촬영, 관객들이 마치 눈앞에서 전시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기획으로 예술가의 삶과 시대적 배경, 세계 최고 미술관에서 작품이 어떻게 전시되는지 등 비하인드 스토리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빈센트 반 고흐-새로운 시선’, ‘정원을 그리다-모네에서 마티스까지’ 등을 상영했던 ‘스크린 뮤지엄’은 올해 첫 작품으로 ‘히에라니무스 보쉬의 기이한 세계’를 18일부터 선보인다.

네덜란드 출신의 중세 시대 화가로 독특한 방법으로 시대를 기록하고 환상 속에 진실을 전달한 보쉬는 특유의 독창성과 상상력으로 기괴하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 ‘지옥을 그린 화가’로 불린다. 이번 작품은 42만명이 관람한 네덜란드 누브르반 국립미술관의 ‘보쉬 회고전’ 모습을 담았다.

3월에는 ‘미켈란젤로 : 사랑과 죽음’을 선보인다. 피렌체, 로마, 바티칸을 여행하며 조각가이자, 화가, 건축가, 시인이었던 르네상스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삶을 들여다본 작품이다.

‘스크린 뮤지엄’ 시리즈는 모두 예술다큐멘터리의 거장으로 꼽히는 필 그랩스키 감독이 총제작을, 데이비드 비커스태프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전 세계 55개국에서 개봉했다.

오페라 프로그램 ‘유니텔 오페라’는 올해도 이어진다. 1~3월에는 ‘필름 오페라 기획전’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가 영화화한 고전 명작 오페라가 상영되며 4월부터는 최신 화제작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메가박스 총장로점 기획 다채**

**3월까지 '스크린 뮤지엄'**

**'보쉬의 기이한 세계' 18일 상영**

**차기작은 조각가 미켈란젤로**

**2018 '유니텔 오페라'**

**'라 보엠' 등 고전+최신작 편성**

**파바로티·도밍고 전성기 감상**

1월에는 푸치니의 '라 보엠'을 만날 수 있다. 디바 안나 네프레코와 테너 로란드 빌라존이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로베르트 도른헬름 감독이 연출을 맡아 실사 영화화했다. 2월 상영작은 베르디의 '리골레토'다. 오페라 연출가 장 피에르 폰넬과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사이가 함께 한 고전 명작 스페셜로 '하이 C의 제왕'으로 불리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전성기 모습을 만날 수 있다.

3월에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프랑코 제피넬리 감독의 화려한 오페라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젊은 시절 플라시도 도밍고의 파워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어 4월에는 201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화제작으로 안나 네프레코가 주연한 '아이디', 5월에는 도밍고가 지휘를 맡은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상영된다. 7월에는 브레젠츠 페스티벌 상영작 비제의 '카르멘'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에서는 총장로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가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큐 '히에라니무스 보쉬의 기이한 세계'의 한 장면.

## '아기자기' 지역예술품 장서는 날

20일 유·스퀘어 예술시장 개최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20일 유·스퀘어 2층에서 '아름다운 예술시장'(사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 인테리 어 소품과 예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예술시장에서는 누구나 셀러로 참여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자신의 기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연을 원하는 밴드는 예술시장이 열리는 날 야외광장에서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1~10일까지 받고 있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 열리며, 다음달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2월 24일에 열린다. 문의 062-360-843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한파 속 봄소식처럼 즐거운 '앓음'

양현주 시인 신작 '구름왕조실록'



“분홍아, 꽃 모가지 아프다고 오전의 뿌리가 마르지 않아 화류놀이를 즐겨 봐/ 노을이 된 나를 밟고 가만히 구름 위에 앉아 봐// 첫명에서 환한 꽃등이 터진다// 나를 조물락거리다/ 너를 풀어놓으니 계곡의 꽃 지지마/ 뜨거운 것들의 뒤끝이 쌀쌀하다”

한겨울 추위 속 봄소식은 아득하다. 몇 번의 한파가 물러가고 나야 꽃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시 행간에 살아 있는 꽃 이미지로 향기를 전하는 시집이 출간됐다.

제16차 계간 '시산맥' 기획시선 공모에 당선된 양현주 시인의 신작 '구름왕조실록'이 그것이다.

'불혹', '구름왕조실록', '꽃나무 곁에서 시

쓰기', '둥근 집', '나는 종종 인연을 연인으로 읽는다' 등 50여 편의 작품은 파스하면서도 향기롭다. 사물을 관조하는 화자의 시선은 시적인 새로움과 실존적 지향을 추구한다.

유종인 시인은 해설에서 “이기의 테두리를 넘어 범예의 경지로 날드려는 시인의 도전한 시정신은 부단히 사랑에의 눈뜸을 갈애하듯 응시하고 있다”며 “시적인 새로움과 더불어 존재의 영혼을 응송할게 하는 즐거운 '앓음'이자 '앓(知)'의 지평이지 싶다”고 평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 3개 극단, 내달 1일까지 배우 모집

'청춘' '우연' '청연'

극단 '청춘'과 직장인극단 '우연', 청소년극단 '청연'이 2018년도 공연사업을 위해 공연활동에 함께 참여할 단원(배우)을 모집한다. 분야는 배우(연극연기), 스텝(조명, 음향 등) 등이다.

극단 '청춘'에는 20세 이상 신체, 정신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단원들은 주 2~3일 배우 트레이닝을 받으며 공연이 있을 시 주 6일 이상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시간은 오후 7시~밤 10시며 활동회비는 없다.

직장인극단 '우연'은 20세 이상의 일반 직장인이면 지원가능하다. 선발된 단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밤 10시 배우 트레이닝과 공연 연습 등을 진행한다. 회비는 3개월에 5만 원이다.

청소년극단 '청연'은 14세~19세의 청소년을 모집한다. 배우트레이닝, 공연연습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며 회비는 3개월에 3만 원이다.

접수는 오는 2월1일 자정까지이며 오디션은 2월2일 오후 7시 예술극장 '통'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극단청춘의 다음, 네이버 카페 공지방에 첨부된 서류(입단신청서)를 다운받아 서류 작성한 후 이메일(cctheater@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430-5257, 010-5199-52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